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현황 및 원인

조미현[†] · 신경선^{††}

요 약

최근 인터넷 사용이 확산되면서 그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 중독이 주요 이슈로 다루어지며, 인터넷 사용자의 연령층이 낮아지면서 인터넷 중독에 대한 우려는 초등학생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중독 관련 연구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상당수 이루어졌으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고, 초·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표준화와 타당화 과정을 거친 신뢰로운 검사 도구의 사용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그와 같은 필요를 고려하여 개발된 인터넷 중독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전국의 5, 6학년 1,38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의 현황과 그 원인이 되는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조사 대상의 5.5%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고위험사용자군으로 분류되었고 12.4%의 학생들이 잠재적위험사용자군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수준은 성, 학년 등과 같은 '인구학적 요인', 사용 시간, 목적 등과 같은 '인터넷 사용 경험', 가족 형태, 관계 만족도 등과 같은 '가족 관련 특성', 친구관계, 학교생활과 같은 '사회적 활동' 등의 4가지 영역의 15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키워드 : 인터넷 중독, 인터넷 사용

The Current Status and Causes of Elementary Students' Internet Addiction

Miheon Jo[†] · Kyung-Sun Shin^{††}

ABSTRACT

With recent surge of Internet use, many people become concerned with side effects of Internet. Especially Internet addiction has become a significant issue. As Internet users become much younger than before, Internet addiction is salient even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ile much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adolescents' addiction, only a litt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elementary students' Internet addic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use a standardized and reliable evaluation tool that is designed to assess the level of children's and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realities of elementary students' Internet addiction using an evaluation tool developed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students, and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Internet addiction. A survey was conducted to 1,382 5th and 6th graders selected from nationwide school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5.5% of the sample students are in the stage of serious addiction, and 12.4% in the stage of early addiction. In addition, the degree of Internet addiction significantly differs by various variables such as demographic factors, the experience of Internet use, family-related traits, and social activities.

Keywords : Internet addiction, Internet use

1. 서 론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보급률은 세계 1위이며, 인터넷사용율은 세계 3위이다[13]. 이와 같이 인터넷 사용이 확산되면서 인터넷이 주는 각종

[†] 종신회원: 청주교육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교신저자)
^{††} 준회원: 청주 모충초등학교 교사
논문접수: 2004년 7월 14일, 심사완료: 2004년 8월 3일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인터넷은 양질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그 정보를 시공간에 제한 받지 않고 사용하도록 하며,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과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하는 등 다른 매체로는 가능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인터넷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인터넷 사용의 역기능, 특히 아동과 청소년들의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10대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율이 가장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방송광고공사가 2003년 말에 각 연령대별로 인터넷 사용율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0대 남학생의 경우 98%가 그리고 10대 여학생은 97.7%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16]. 이와 같이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율이 높은 한편, 이 연령의 학생들은 아직 판단력이 부족하기에 인터넷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지도를 통하여 인터넷 사용의 역기능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의 오용 또는 남용에 따른 역기능은 익명성을 사용한 인신 공격, 언어 폭력, 개인 정보 침해, 음란물 오염, 바이러스 확산, 인터넷 중독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9]. 역기능 중 많은 관심을 받는 분야는 인터넷 중독이라 할 수 있다[6][17].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 사용을 통해 만족과 편안함을 느끼는 '의존성', 그 의존의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나타나는 '내성 현상' 그리고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나타나는 '금단 현상'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이 현상들은 또한 학생들의 경우에 학습 지장, 일상생활 부적응, 감정 조절 능력 감소, 대인 관계 장애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18][31]. 따라서 인터넷 사용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중독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그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중독 관련 연구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당 수 이루어진 것과 비교할 때, 초등학생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초등학생은 중·고등학생과는 매우 다른 흥미와 특성을 지니고 있기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인터넷

중독과 관련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추어 검증되지 않았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되었던 Young의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는 문제를 갖는다.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표준화와 타당화 과정을 거친 신뢰로운 검사 도구의 사용이 절실히 필요하다[18][22].

이에 본 고에서는 그와 같은 필요를 고려하여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개발한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를 사용하여, 전국의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다 정확한 인터넷 중독의 현황을 알아보고, 중독의 원인이 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인터넷 사용의 역기능과 중독

인터넷이 제공하는 사이버 문화는 사이버 공간이나 현실 공간에 다양한 영향을 주게 된다. 사이버 문화의 특성별로 가능한 영향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23]. 인터넷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영향이 긍정적인 영향보다 상대적으로 커질 때, 인터넷의 순기능보다는 폭력, 일상 생활의 부적응, 현실과 가상 세계의 혼돈 등 다양한 역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

<표 1> 사이버문화 특성별 영향

특성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익명성	· 자유로운 의견 표현 · 정체성 실험 가능	· 무책임성, 무절제 조장
개방성	· 평등한 관계 형성 · 참여 기회 확대	· 개인에 대한 집단규범 약화
연결성	· 공동체 형성 · 정보 원천의 다양화 · 정보 공유	· 탈개인화에 따른 비절제 행위 조장 · 비검증 정보 확산
가상성	· 현실적 장벽 극복 · 자유로운 사고 실험	· 현실 감각의 약화 · 현실 도피
선명성	· 다양한 사회적 역할 이해	· 고정관념에 기초한 왜곡된 현실 인식 · 비정상적 행위 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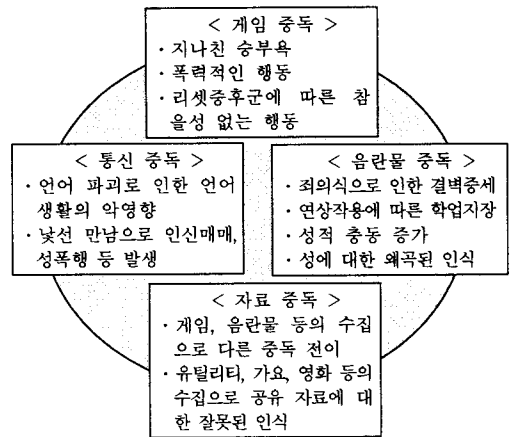
역기능 중에서 특히 인터넷 중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6][17][20]. 인터넷 중독이란 인터넷에 탐닉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혼돈함

으로써 초래되는 정신질환의 일종으로서, 이로 인해 일상 생활의 장애가 유발되는 것을 의미한다[18][22]. 인터넷 중독은 마약, 약물 복용, 본드 흡입 등과 같은 물질 중독보다는 오히려 행위 중독적인 측면에 가까우며, 기계 중독으로서 가상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이 다른 중독 증상에 비해 훨씬 다양하게 이루어지기에 생리적이기보다는 현실 도피의 속성이 강하다[2]. 인터넷 중독의 주요 특성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6].

- 집착 및 의존성: 인터넷 사용과 관련한 특정 행위를 중요시하여, 그 행위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계속하기 위해 노력한다.
- 기분의 변화: 특정 행위를 할 때에 만족을 느끼게 되며, 그 행위를 사회생활이나 심리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
- 내성: 특정 행위의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된다.
- 금단: 특정 행위를 중지하거나 행동의 양을 줄이면 불쾌감, 불안감, 우울증, 불면 등의 증상이 생긴다.
- 갈등: 주위의 대인 관계가 나빠지고, 문제가 생긴다.
- 재발: 특정 행위를 중지하거나 조절을 한 후에도 언제든 지 같거나 다른 형태로 문제가 재발될 수 있다.

한편, 인터넷 중독의 종류로는 게임 중독, 통신 중독, 음란물 중독, 자료 중독 등이 있다. 초등학생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주목적은 게임(42.6%), 자료 검색(22.8%), 메일 사용(21.2%) 등의 순으로 밝혀졌으며[14], 학생들이 즐겨찾는 개인과 개인 간 파일 공유 사이트(P2P)에서 유통되는 정보 중에서 음란물이 50%라는 기사[12]에서도 쉽게 학생들이 선호하는 인터넷 사용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중독 증세는 일반적으로 ‘일상 생활 부적응’, ‘감정 조절 능력 감소’, ‘자기 통제력 감소’, ‘현실과 가상의 혼동’, ‘사용량의 증가’, ‘대인 관계 장애’ 등의 공통된 부작용을 가져오게 된다. 이와 더불어서 중독의 각 종류별로 발생하는 부작용들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11][29].



(그림 1) 중독 유형별 부작용

2.2. 10대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원인

N세대로 대변되는 10대 학생들은 개성적, 다원적, 비통제적, 개인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 한편, 정서적 불안정성, 낮은 자존감, 자신의 정체감에 대한 불만 등을 경험하게 된다[1][26]. 이와 같은 특성과 경험은 Young이 지적하였듯이 쉽게 인터넷 사용에 몰입하도록 하여 중독증에 이르게 할 수 있다[31]. 인터넷 중독의 원인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31].

- 사회적 지지: 심리적으로 의존하거나 친숙해져서 사람들 간에 강한 유대감을 갖게 된다.
- 성적인 만족: 온라인상에서는 안전한 것으로 인식하여, 신체 접촉의 위험부담이 없이 자유롭게 성을 표현할 수 있다.
- 새로운 인격창출: 온라인에서 개인은 자신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
- 숨은 성격의 발현: 현실에서 소심한 사람들이 가상공간에서 적극적으로 될 수 있고, 온순한 사람들이 온라인게임을 통해 마음껏 공격성을 발휘할 수도 있다.
- 인정과 영향력: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얻을 수 있다.

인터넷은 접근용이성, 익명성, 편리성, 현실 탈출, 흥미감, 통제감, 사회적지지, 개방성 등의 특성을 가진다[18][26]. 실제로 10대 학생들은 인터넷을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으

로, 중요한 정보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자신과의 연대, 대립, 긴장, 동의 등의 감정을 표출하는 일종의 가상 생활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3][23].

이와 관련하여, 10대 학생들이 인터넷에 몰입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는 10대 학생들의 중독을 유발하는 중요 요인들이 될 수 있다[23][28][29].

- 자아 정체감을 탐색하면서 자신에 대한 불안정감을 통제한다.
- 자신을 나타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친밀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
- 사이버 공간에서 모험심을 충족시켜 가족으로부터 분리하려는 욕구를 충족시킨다.
- 인터넷을 통해 빠른 반응과 공격적인 충동을 분출함으로써 여러 가지 좌절감을 발산한다.
- 주변의 억압과 부담에 대해 사이버 공간에서 고민을 나누면서 억압해제효과를 얻는다.
- 자신의 감정을 마음대로 표현하는 가운데 정서적 투사효과를 얻는다.

2.3. 인터넷 중독의 척도

인터넷 중독을 측정하는 척도는 Young의 척도[30], Brenner의 척도[24], Griffiths와 Hunt의 척도[27], Davis의 척도[25] 등과 같이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하여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 척도들은 중독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척도 문항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타당화가 미비한 통계적인 진단 기준을 설정하였다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18].

특히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인터넷 중독 관련 연구 중 대다수의 연구는 병적인 도박 진단기준을 원용하여 20문항으로 구성된 Young의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를 사용해왔다[18]. 그러나 Young의 척도는 측정 도구 자체가 갖는 문제들은 물론,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몇 가지 문제들을 갖는다[18][22][25]. 먼저 Young의 척도가 도구로서 갖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이 척도는 증상을 나열하여 현재 상태에 대해

기술할 뿐, 심리측정 이론의 검증은 거치지 않았기에 그 타당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 중독 증세가 심각한 경우에도 중독 사실을 부인하는 경향이 있는데, 명백한 문항 내용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가 진단 척도이기에 응답자가 솔직한 문제를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다.
- 이 척도는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인터넷 중독자로 간주하고, 50점에서 79점까지를 중독 가능자로 간주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너무 엄격하게 중독자를 진단하며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중독 가능자의 범위를 측정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Young의 척도는 그 사용 측면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갖는다.

- 이 척도는 성인용으로 제작되었으며,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표준화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나라 10대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실태를 분석하는 도구로서는 부적절하다.
 - 이 척도를 사용한 국내 연구의 결과로 밝혀진 인터넷 중독자 비율의 편차가 매우 크다. 2000년과 2001년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된 3편의 연구들은 각각 연구 대상 청소년들의 4.8%, 29%, 50%가 인터넷에 중독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차이는 척도를 변환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에 따라 척도를 변용하거나 선별 기준을 다양하게 처리한 데서 비롯된다.
-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고, 초·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좀더 신뢰롭고 타당한 검사 도구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에 그 필요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표준화와 타당화 과정을 거쳐서 개발한 인터넷중독 자가진단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2000명을 대상으로,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 및 요인 내용과 문항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문항 점수에 의미를 부여하고, 최종 문항을 선정하는 표준화 작업을 거쳤다. 또한 인터넷 중독 과정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구성하고, 그 모형을 공분산 구조모형으로 검증하여 중독 척도가 이론적 틀과 일치함을 밝히는 타당화 과정을 거쳐서 개발되었다. 이 척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본 고의 연구 방법 중 측정 도구에 대한 논의에서 제시되고 있다.

2.4. 선행 연구 분석

인터넷 사용이 증대되고, 인터넷 사용자들의 연령층이 낮아지면서 중·고등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연구가 상당 수 진행되었다. 먼저 인터넷 사용이 중·고등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던 연구들이 있다. 그 예로, 안석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개인, 가족, 사회 관련 요인들로 나누어,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이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10]. 이와 더불어서 문정혜의 연구는 학생들의 중독 실태를 파악하고, 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7]. 또한 조준범은 가정환경과 학교환경이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연구하였다[15].

한편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역기능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 그 예로, 한복희는 중·고등학생들의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심리·사회적인 문제행동에 초점을 두고 중독과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하였다[21], 또한 김경희는 인터넷 사용 실태와 인터넷으로 인해 중·고등학생들에게 미치는 역기능의 학교 계열간 차이를 분석하였다[4].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위의 연구들과 달리, 초등학생들에 초점을 둔 연구도 이루어졌다. 그 예로, 서현숙은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감성지능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인터넷 중독이 가정 환경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인터넷 중독 여부와 감성지능의 각 하위 요인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8]. 그러나 본고의 서론에서 지적하였듯이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중·고등학생들에 초점을 두었으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위의 연구들에서 인터넷 중독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진 요인들과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요인들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별 분석된 인터넷 중독 관련 요인

연구	유의미한 요인	유의미하지 않은 요인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10]	성, 학년, 하루 사용 시간, 접근성, 문제 행동, 가족 지지	자기통제력, 익명성, 친구 지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7]	인터넷 사용 시간, 사용 서비스, 비용 지불자, 사용 경력, 사용 횟수, 사용 시간대	성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가정 및 학교 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15]	어머니의 직업, 부모와 자녀 관계의 만족도, 부모의 인터넷에 대한 통제력, 학교 성적, 과외나 학원 수강 여부,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 교사의 인터넷에 대한 통제력	부모의 관계 정도, 부모의 인터넷 사용 유무, 부모의 교육 수준
인터넷 중독 정도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심리·사회적 역기능에 관한 연구[21]	학교급, 사용자 부모 학력, 사용 시간, 일주일 평균 사용 시간, 사용 시간대, 사용 장소, 서비스 유형, 교사와의 관계, 학교생활 만족도, 수업시간 만족도, 친구관계 만족도	성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실태와 역기능에 관한 연구[4]	인터넷 사용 경력, 사용 시간, 사용 목적, 사용 장소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감성지능과의 관계[8]	성, 가족 대화, 부모 직업 유무, 사용 장소, 가족 형태	사용 시간, 컴퓨터 소재 장소, 부모의 컴퓨터 사용 유무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도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중독의 실태와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중·고등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이루어졌기에 초등학생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여섯 편의 연구들을 비롯하여 많은 연구들이 Young의 평가 척도를 사용하는데, 앞서 논하였듯이 이 척도 자체가 갖는 문제와 더불어서 그 척도를 사용하는 방법에서의 문제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표준화와 타당화 과정을 거쳐서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개발된 척도를 사용하여 인터넷 중독 현황을 정확히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전국의 초등학교들 중에서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대상 학교들을 표집하고, 각 학교의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검사를 실시하였다. 모두 1,382명의 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그 학생들의 배경 정보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참여 학생들의 배경 정보

구분		빈도(명)	백분율(%)
지역	특별·광역시	532	38.5
	시지역	389	28.1
	읍·면지역	461	33.4
성별	남	697	50.4
	여	685	49.6
학년	5학년	695	50.3
	6학년	687	49.7
계		1,382	100

3.2. 측정 도구

인터넷 중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 현실에 맞는 도구로 개발되어, 타당화와 표준화 작업을 거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를 사용하였다(<표 4> 참조).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척도는 인터넷 중독에 관한 이론적 기반에 기초하여 인터넷 중독의 제반 증상을 포괄하는 4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평정되며(1: 전혀 그렇지 않다, 2: 대체로 그렇다, 3: 자주 그렇다, 4: 항상 그렇다), 요인분석에 의하여 이들 40개 문항은 일상생활장애(A요인), 현실구분장애(B요인), 긍정적 기대(C요인), 금단(D요인), 가상적대인관계지향성(E요인), 일탈행동(F요인), 내성(G요인) 등과 같은 7개 요인들로 구분된다[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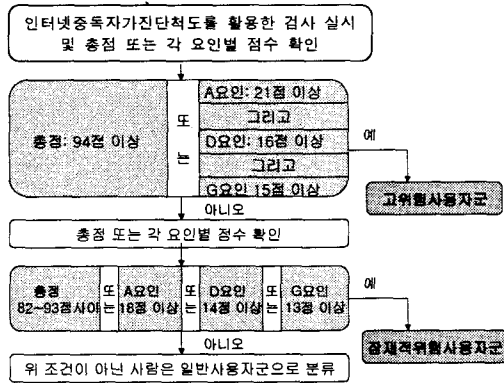
<표 4>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 문항

영역 번호	항 목
A	1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서 생활이 불규칙해졌다.
	2 인터넷 사용으로 건강이 이전보다 나빠진 것 같다.
	3 인터넷 사용으로 학교 성적이 떨어졌다.
	4 인터넷을 너무 사용해서 머리가 아프다.
	5 인터넷을 하다가 계획한 일들을 제대로 못한 적이 있다.
	6 인터넷을 하느라고 피곤해서 수업시간에 잠을 자기도 한다.
	7 인터넷을 너무 사용해서 시력 등에 문제가 생겼다.
	8 다른 할 일이 많을 때에도 인터넷을 사용하게 된다.
	9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가족들과 마찰이 있다.

영역 번호	항 목
B	10 인터넷을 하지 않을 때에도 하고 있는 듯한 환상을 느낀 적이 있다.
	11 인터넷을 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인터넷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리고 인터넷을 하는 꿈을 꾸다.
	12 인터넷 사용 때문에 비도덕적인 행위를 저지르게 된다.
C	13 인터넷을 하는 동안 나는 가장 자유롭다.
	14 인터넷을 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흥미진진해진다.
	15 인터넷을 하는 동안 나는 더욱 자신감이 생긴다.
	16 인터넷을 하고 있을 때 마음이 제일 편하다.
	17 인터넷을 하면 스트레스가 모두 해소되는 것 같다.
	18 인터넷이 없다면 내 인생에 재미있는 일이란 없다.
D	19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생활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20 만약 인터넷을 다시 할 수 없게 된다면 건디기 힘들 것이다.
	21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안절부절못하고 초조해진다.
	22 인터넷을 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인터넷에 대한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
	23 인터넷 사용 때문에 실생활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인터넷 사용을 그만두지 못한다.
	24 인터넷을 할 때 누군가 방해할 하면 짜증스럽고 화가 난다.
E	25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 현실에서 아는 사람들보다 나에게 더 잘해준다.
	26 온라인에서 친구를 만들어 본 적이 있다.
	27 오프라인에서보다 온라인에서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더 많다.
	28 실제에서 보다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F	29 실제 생활에서도 인터넷에서 하는 것처럼 해보고 싶다.
	30 인터넷 사용시간을 속이려고 한 적이 있다.
	31 인터넷을 하느라고 수업에 빠진 적이 있다.
	32 부모님 몰래 인터넷을 한다.
	33 인터넷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쓰게 된다.
	34 인터넷에서 무엇을 했는지 숨기려고 한 적이 있다.
G	35 인터넷에 빠져 있다가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어긴 적이 있다.
	36 인터넷을 한번 시작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오랜 시간을 인터넷에서 보내게 된다.
	37 인터넷을 하다가 그만 두면 또 하고 싶다.
	38 인터넷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
	39 인터넷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곤 한다.
	40 주위 사람들이 내가 인터넷을 너무 많이 한다고 지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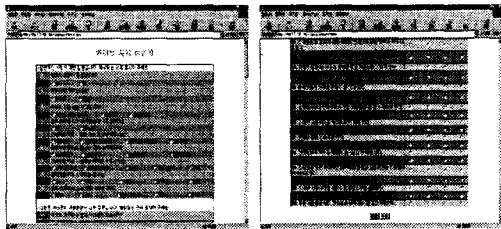
이 척도는 획득한 점수의 분포에 근거하여 인터넷 중독 성향을 구분한다. 중독자 집단의 구분은 총 40문항의 총점과 7개 요인 중에서 일상생활장애(A), 금단(D), 내성(G)과 같은 3개 요인 각각의 합계를 사용하여 분류한다[19]. 즉, 고위험 사용자군은 총점이 94점 이상이거나, A요인이 21점 이상이고 D요인이 16점 이상이며 G요인이 15점 이상인 집단이다. 한편 잠재적위험사용자군은 총점이 82~93점 이상이거나 세 하위 요인들 중에서 A요인이 18점 이상이거나 D요인이 14점 이상이거나 G요인이 13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비교할 때, 일반사용자군은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집단으로 구분한다. (그림 2)는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척도에 의하여 중독자 집단을

분류하는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인터넷 중독자 집단 분류 절차

본 연구는 또한 인터넷 중독 측정을 위하여 온라인 설문 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 상에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설문 시스템 화면의 예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온라인 설문 시스템 화면의 예

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와 더불어서, 인터넷 중독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선별하여 20개의 설문 문항들을 작성하였다. <표 2>에 정리된 요인들을 고려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지 않은 요인,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요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지 않은 요인, 일관된 결과가 발견되지 않은 요인,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요인 등과 같이 관련 요인의 유형을 <표 5>와 같이 구분하였고, 이를 토대로 측정 요인들을 선정하였다. 이 요인들은 또한 그 특성에 따라서 '인구학적 요인', '인터넷 사용 경험', '가족 관련 특성' 그리고 '사회적 활동'과 같은 4가지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다.

<표 5> 인터넷 중독 영향 요인 선정 기준

구분	요인
초등학생대상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학적 요인: 학년, 과외나 학원 수강 여부 · 인터넷 사용 경험: 인터넷 하루 사용 시간, 인터넷 사용 목적, 사용 장소 · 가족 관련 특성: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인터넷 사용 관련 부모의 간섭 여부, 부모 직업 유무 · 사회적 활동: 학교 생활 만족도, 친구 관계
청소년대상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의 선행 연구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기에 다시 살펴보아야 할 요인 · 가족 관련 특성: 가족 대화 정도, 가족 형태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지 못한 주요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학적 요인: 지역 · 가족 관련 특성: 인터넷을 사용하는 형제(자매) 유무
선행연구의 결과가 일관되지 않은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학적 요인: 성 · 인터넷 사용 경험: 인터넷 사용 경력 · 가족 관련 특성: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선행연구에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학적 요인: 컴퓨터 소재 장소 · 가족 관련 특성: 부모의 인터넷 사용 유무

3.3. 자료 분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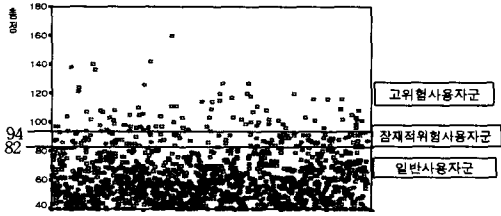
본 연구는 초등학생 5, 6학년 아동 1,382명에 대하여 설문하여 수집된 자료를 SPSSWIN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인터넷 중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하였다. 또한 인터넷 중독과 관련이 있는 요인들에 대해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4. 인터넷 중독의 실태와 원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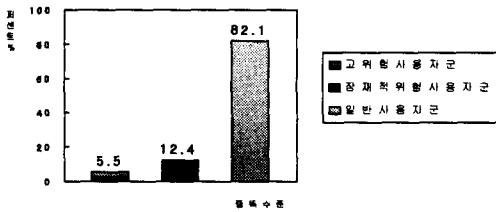
4.1. 인터넷 중독 실태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를 사용하여 5, 6학년 학생 1,38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총점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한 결과는 (그림 4)와 같으며, 요인별 점수를 함께 적용하여 분류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전체 응답자의 5.5%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고위험사용자군으로 구분되었으며, 12.4%가 잠재적위험사용자군으로 구분되었다. 고

위험사용자군과 잠재적위험사용자군으로 분류된 17.9%를 제외하고 82.1%는 일반사용자군으로 분류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등학교의 인터넷 중독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필요를 밝혀준다.



(그림 4) 인터넷 중독 총점 분포



(그림 5) 인터넷 중독 실태 분석 결과

4.2. 인터넷 중독 원인

인터넷 중독과 관련이 있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 학년, 지역, 과외나 학원 수강 여부, 인터넷 사용 경력, 인터넷 하루 사용 시간, 인터넷 사용 목적, 사용 장소, 컴퓨터 소재 장소, 가족 형태, 어머니 학력, 아버지 학력, 부모 직업 유무, 부모의 컴퓨터 사용 유무,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부모의 컴퓨터 사용 간섭 여부, 인터넷을 사용하는 형제(자매) 유무, 가족 대화 정도, 친구 관계, 학교생활 만족도 등과 같은 20가지 항목들과 인터넷 중독 수준을 교차분석하여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중독 수준에 대해 15가지 요인들과 관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표 6> 과 같다.

<표 6> 인터넷 중독 영향 요인 교차분석 결과

구분	중독수준(%)	중독수준(%)			전체(명)	비교	
		고위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일반 사용자군			
인구학적 요인	성	남 6.0	16.1	77.9	697	$\chi^2=18.492$	
	여	5.0	8.8	86.2	685	$p=.000^{***}$	
	학년	5학년	4.2	10.9	84.9	695	$\chi^2=8.409$
		6학년	6.8	14.0	79.2	687	$p=.015^*$
	지역	특별·광역시	7.9	12.4	79.7	532	$\chi^2=14.421$
		시지역	4.1	9.8	86.1	389	$p=.006^{**}$
		읍·면지역	3.9	14.8	81.3	461	
과외나 학원 수강여부	수강	4.7	11.6	83.7	1,029	$\chi^2=9.060$	
	비수강	7.9	15.0	77.1	353	$p=.011^*$	
인터넷 사용 경험	인터넷 사용 경력	1년미만	1.1	6.7	92.2	89	$\chi^2=23.919$
		2년미만	1.2	13.1	85.7	244	$p=.001^{**}$
		3년미만	5.1	13.6	81.3	314	
	인터넷 하루 사용 시간	3년이상	8.1	12.2	79.7	615	
		1시간미만	2.1	6.9	91.0	569	$\chi^2=146.620$
		2시간미만	4.5	10.8	84.7	463	$p=.000^{***}$
	인터넷 사용 목적	3시간미만	6.5	19.9	73.6	186	$p=.000^{***}$
		3시간이상	18.9	28.0	53.1	164	
		공부 및 과제	1.6	2.2	96.2	186	
		채팅(대화방)	10.3	23.0	66.7	126	$\chi^2=69.430$
인터넷 사용 목적	매일	2.7	10.2	87.1	226	$p=.000^{***}$	
	게임·오락	7.4	15.7	76.9	635		
	기타	3.3	7.7	89.0	209		
가족 형태	조부모+부모	3.3	11.7	85.0	213		
	+형제+나					$\chi^2=17.179$	
	부모님+형제	5.4	11.4	83.2	988	$p=.009^{**}$	
	+나						
	부모님+나	11.0	15.0	74.0	73		
어머니 학력	기타	7.4	21.3	71.3	108		
	대학원졸업	5.5	9.6	84.9	73		
	대학교졸업	2.8	11.1	86.1	288	$\chi^2=24.817$	
	고등학교졸업	5.4	10.8	83.8	611	$p=.016^*$	
	중학교졸업	9.0	17.9	73.1	67		
	초등학교졸업	18.8	6.2	75.0	16		
	기타	13.0	13.1	73.9	23		
아버지 학력	모름	6.3	16.7	77.0	304		
	대학원졸업	3.2	8.1	88.7	124		
	대학교졸업	3.8	12.1	84.1	397	$\chi^2=22.237$	
	고등학교졸업	6.3	10.9	82.8	476	$p=.035^*$	
	중학교졸업	3.5	15.8	80.7	57		
	초등학교졸업	20.0	20.0	60.0	15		
	기타	11.1	11.1	77.8	18		
부모의 인터넷 사용 유무	모름	6.9	16.2	76.9	295		
	두분 모두사용	4.7	10.0	85.3	599		
	아버지만사용	6.8	15.6	77.6	308	$\chi^2=14.031$	
	어머니만사용	3.1	16.6	80.3	163	$p=.029^*$	
부모 관계 만족도	두분 모두 사용 안함	7.1	11.9	81.0	312		
	만족	4.1	9.7	86.2	852	$\chi^2=42.686$	
	보통	6.9	18.0	75.1	450	$p=.000^{***}$	
가족과의 대화시간	불만족	19.1	10.6	70.3	47		
	많이 나눔	3.9	10.6	85.5	648	$\chi^2=21.972$	
	조금 나눔	6.0	12.8	81.2	588	$p=.000^{**}$	
거의 없음	11.0	19.2	59.8	146			

구분		중독수준(%)			전체 (명)	비고	
		고위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일반 사용자군			
사회적 활동	친구 관계	누구와도 잘 어울림	3.5	8.7	87.8	404	$x^2=47.719$ $p=.000$ ***
		대부분 잘 어울림	4.7	12.9	82.4	657	
		몇몇만 어울림	8.5	16.9	74.6	307	
		어울리지 않음	35.7	0.0	64.3	14	
	학교생활 만족도	매우 즐겁고 재미있음	3.3	11.1	85.6	425	$x^2=45.937$ $p=.000$ ***
		즐겁게 생활함	4.9	11.4	83.7	651	
		그냥 그러함	7.5	14.6	77.9	253	
		다나기 싫음	20.8	26.4	52.8	53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인구학적 요인'과 관련해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인터넷에 중독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게임에 대하여 관심과 흥미가 높은 것과 관련하여 인터넷 중독에 걸릴 위험이 높은 것이다. 또한 5, 6학년 중 학년이 높을수록 인터넷을 접하는 시기가 이르기 전에 중독 경향이 나타나기 쉽다. 지역별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특별시나 광역시에 거주하는 학생의 경우 고위험사용자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기에 대도시에서 인터넷 중독 현상이 나타나기 쉬움을 알 수 있다. 또한, 과외나 학원을 수강하지 않을수록 인터넷에 중독되기 쉽다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과외를 하거나 학원을 수강하는 경우에 여가 시간이 적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중독될 확률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 경험'과 관련하여 인터넷 사용 경력, 인터넷 하루 사용 시간, 인터넷 사용 목적의 3가지 요인들에 대해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인터넷을 사용한 경력이 많을수록, 하루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평균 시간이 길수록 인터넷 중독 경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하루에 인터넷을 정해진 시간 동안 사용하는 것이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목적과 관련해서는 채팅이나 게임과 오락을 하는 경우에 인터넷 중독 경향이 더 나타났다. 또래집단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아동기에는 채팅을 통하여 또래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며, 게임과 오락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따라서 인터넷 사용을 대체하는 또래들과의 놀이나 활동에 참여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가족 관련 특성' 요인들 중에서는 가족 형태, 어머니 학력, 아버지 학력, 부모의 컴퓨터 사용 유무,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가족 대화 등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가족 형태를 살펴보면, 조부모님, 형제 또는 자매가 없이 혼자인 경우 인터넷 중독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터넷 사용에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에 중독되기 쉬운 것이다. 부모님의 학력을 살펴보면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초등학교만 졸업한 경우에 높은 중독 경향을 보이고 있어 부모의 학력과 인터넷 중독 간에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가 컴퓨터를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더 높은 인터넷 중독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부모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아서 인터넷 사용의 장단점을 모르기 때문에 간섭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 해석될 수 있다.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에서도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는데, 부모와의 관계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높은 중독률을 보였다. 또한, 가족과의 대화 시간이 적을수록 더 인터넷에 중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들이 자녀와 대화를 많이 나누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사회적 활동'과 관련해서는 친구관계와 학교생활 만족도가 유의미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않을수록, 그리고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않을수록 더 인터넷 중독 경향을 보였다. 일상생활에서 친구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 친구를 소중히 여기는 경향이 나타난다. 인터넷에서의 만남은 현실에서 느끼던 소외감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갖게 하며, 학교생활에 불만족하는 경우에도 인터넷을 통하여 그 불만족을 해소할 수 있기에 더욱 인터넷 사용에 몰입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친구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는 것이 인터넷 중독 예방의 방법이 되므로 이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

5. 결 론

최근 인터넷 사용이 확산되면서 그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 중독이 주요 이슈로 다루어지며, 인터넷 사용자의 연령층이 낮아지면서 인터넷 중독에 대한 우려는 초·중학생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중독 관련 연구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상당수 이루어졌으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고, 초·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표준화와 타당화 과정을 거친 신뢰로운 검사 도구의 사용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본 고에서는 그와 같은 필요를 고려하여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개발한 인터넷 중독 자가 진단척도를 사용하여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인터넷의 중독적인 사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전국의 초등학교 5, 6학년 1,38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고위험사용자군으로 분류되었고, 12.4%가 잠재적위험사용자군으로 분류되었다. 잠재적위험사용자군의 학생들은 '학업 곤란', '심리적 불안정', '자기조절의 어려움', '낮은 수준의 자신감' 등의 증상을 나타낼 수 있기에 인터넷을 건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기 점검 활동이 요구된다. 또한 고위험사용자군에 속한 학생들은 잠재적위험사용자군의 학생들이 겪는 경험과 더불어서 '비도덕적인 행위', '대인관계 곤란', '우울감이나 외로움', '높은 수준의 충동성'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심각한 장애를 보이면서 내성 및 금단 현상을 나타낼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18].

실제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실시한 연구에서 밝혔듯이, 고위험 및 잠재적위험 사용자군의 학생들이 일반사용자군의 학생들보다 '학업 곤란'과 '심리적 부적응(강박증, 대인 민감성, 적대감, 우울증상, 공포불안)'을 더 경험한다는 사실[18]은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이 가져오는 위험에 대해 더욱 우려하게 한다. 이러한 중독의 파급효과를 고려한다면, 본 연구에서 밝혀진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현황은 앞으로 예견되는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매우 심각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적 현상에 있어서 인터넷의 사용이 하나의 경향으로 받아들여지다 보니 인터넷 중독의 경우에 문제적 행동보다는 적응적인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인터넷의 순기능이 더 부각되어 그 역기능으로서의 인터넷 중독이 무의식 속에 더욱 확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2]

한편 본 연구는 '인구학적 요인', '인터넷 사용 경험', '가족 관련 특성', '사회적 활동' 등과 같은 4가지 영역에서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20가지의 요인들을 선정하여,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던 가족 대화 정도와 가족 형태는 본 연구에서도 여전히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지 않았던 학년, 지역, 과외나 학원 수강 여부, 인터넷 하루 사용 시간, 사용 목적,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 친구 관계 등의 요인들 역시 중독 수준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선행 연구에서 그 결과가 일관되지 않았거나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던 성, 인터넷 사용 경력, 부모 학력, 부모의 인터넷 사용 유무 등의 요인들에 대해서도 중독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중독의 원인들에 대한 연구가 중요함을 시사해준다. 특히 인터넷 중독의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10대 학생들의 경우에는 '사랑의 결핍'을 주요한 원인의 하나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5]. 사랑이 결핍된 아동들이 인터넷의 사이버 공간에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상처받은 삶을 보상받고자 하는 것이다.

인터넷이 제공하는 사이버 공간은 현실 공간의 문제들이 드러나도록 하기에 현실 세계의 문제를

포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23].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 흔히 나타나는 언어 폭력, 인신공격, 성숙되지 못한 토론 문화, 성희롱 등과 같은 사이버 공간의 반사회적 행위나 부작용을 통해 현실 사회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은 이미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한다면, 인터넷 중독의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인터넷 중독 현황을 분석하는 연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고, 인터넷 중독 예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가정, 학교 등에 널리 홍보하는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이 주관 없이 인터넷 사용에 몰입하기보다는 인터넷을 '자존'과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인식하고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지도하는 노력 또한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1] 강창동, 채선희, 백영균, 홍후조(2001). 학교교육 지원을 위한 사이버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I).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 권준수(2001). 인터넷 중독증. 의사협회지, 4(8), pp. 759-764.
- [3] 김경선, 김진희(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자녀 관계변인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학회지, 6(1), pp. 15-25.
- [4] 김경희(2001).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실태의 역기능에 대한 연구(고등학교 계열별 비교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김세곤(2000). 인간행동의 이해를 위한 심리학 탐구. 양서원.
- [6] 류인권, 하지현, 양은주, 김영미, 장창곡, 우종인(2000). 인터넷 중독의 정신병리. 정신병리학, 9(1), pp. 16-26
- [7] 문정혜(2000).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증에 대한 연구. 계명대학교 여성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서현숙(2002).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감성지능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스테판 O.(2003). 인터넷 중독의 이해. 학지사.
- [10] 안석(2000). 인터넷 중독증에 관한 연구-서울 소재 중학생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어기준(2000). 청소년 PC 중독의 유형과 문제점. 한국청소년상담원.
- [12] 연합뉴스(2004. 7. 7). 청소년사이트 음란물 투성이.
- [13] 오연호(2004). 인터넷시대와 참여민주주의.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 창립총회 자료집.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47&article_id=0000047612
- [14] 조선일보(2002. 2. 18). 초등생 1025명 설문; "인터넷 주목적은 게임" 42.6%.
- [15] 조춘범(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가정 및 학교 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6] 한국방송광고공사(2003). Media and Consumer Research 보고서.
- [17] 한국정보문화센터(2001). 인터넷 중독 현황 및 실태조사.
- [18]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2).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 및 예방 프로그램 개발 연구.
- [19]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2003). 인터넷중독자가진단검사(K-척도)와 예방교육프로그램.
- [20] 한국청소년상담원(2000). 청소년의 PC중독.
- [21] 한복희(2001). 인터넷 중독 정도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심리·사회적 역기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2] 황상민(2001). 인터넷 중독현황 및 실태조사. 한국정보문화센터.
- [23] 황진구, 권태희(2003). 청소년의 사이버커뮤니티 참여 및 사용실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24] Brenner, V.(1997). Psychology of computer use: XL VII. Parameters of Internet Use, Abuse and Addiction: The first 90 days of Internet usage survey. *Psychological Reports*, 80, pp. 879-882.
- [25] Davis, R. A.(2001). A cognitive-behavior

- model of pathological Internet usage. *Computer in Human Behavior*, 17(2), pp. 187-195.
- [26] Griffiths, M.(1999). Internet Addiction. *The Psychologist*, 12(5), pp. 246-250.
- [27] Griffiths, M.D., & Hunt, N.(1998). Dependence on Computer Games by Adolescents. *Psychological Report*, 82(2), pp. 475-480.
- [28] King, A.(1996). *Is the Internet Addictive, or are Addictives Using the Internet?* <http://www.concentric.net/~astrom/iad.html>
- [29] Suler, J.(2000). *Internet Addiction: in a nutshell.* <http://www.rider.edu/~suler/psycyber/healthyinternet.html>.
- [30] Young, K.(1996). Addictive use of the Internet: a case that breaks the stereotype. *Psychological Reports*, 79, pp. 899-902.
- [31] Young, K.(1998). *Caught in the Net.* Indianapolis, IN: John Wiley & Sons Press.

조 미 현



Univ. of Wisconsin-Madison 컴퓨터
교육·교육공학 전공 (MS, Ph.D)
청주교육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 e-learning, 교수 설계,
ICT 기반 교수-학습 방법
E-mail : mihjo@cje.ac.kr

신 경 선



청주교육대학교 교육학사
청주교육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교육
석사과정
청주 모충초등학교 교사
관심분야 : 컴퓨터 교육, WBI,
ICT 교육
E-mail : 97cream@hanmail.net